문화세계의 창조

교훈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

대학주보

경희대학교 대학주보사
서울캠퍼스(우·130 701)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1 ☎(961)0095, (963) 5849 FAX(963) 5849
수원캠퍼스(우·449 701)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서천리1 ☎(741) 5702 (교환:2056, 2860) 직통 (0331)280-2056, 2860 FAX(0331) 280-2238

발행편집인 조 영 식
주간 이 석 우
편집장 오 홍 섭
인쇄인 김 준 배

제1019호 〈주간〉 1993년 4월 5일 (월요일) THE UNIVERSITY WEEKLY (1955. 10. 27 제3종우편물(가)급인가 / 1964. 1. 등록번호 다-12) (1955년 5월 12일 창간) 【1】

등록금 협상지연 조짐

교육부 보고 앞두고, 인상률 조정 쟁점

등록금 협상이 7차까지 끝난 현재 양 캠퍼스는 전혀 다른 협상상황을 보이고 있다.

등록금 인상률 협상 질대불가와 복지문제 논의 가능 입장을 보인 학교측에 서울캠퍼스는 학생측과 복지사항 대부분의 합의가 이루어진 반면 수원캠퍼스는 학생측이 등록금 인상률 조정을 복지사안협상의 전제로 내 걸어 협상이 전혀 진전되지 못했다.

등록금 인상률의 경우 양캠퍼스에 동일 적용되는 관계로 이번주 10일로 설정된 학교측의 교육부 재적보고를 앞둔 6일 수원캠퍼스 협상추이에 따라 서울과의 연계를 통해 이뤄질 전망이며 학교측의 대외적 입장고려로 타학교의 상황까지 파악한후 진행될 것으로 보여 합의가 지연될 조짐이다.

【서울】지난달 30일 7차협상까지 끝낸 현재, 학생측 요구안중 등록금인상율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 양측의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주요 합의사항을 살펴보면 △교육재정확보부문에서 재단전입금의 등록금인상율이상 확보, 화학과 실험기자재 구입은 등록금이외의 재원으로 충당 △교육여건 및 제도개선부문에서 교수제용시 학생참여 보장과 신입생 교양교재 환불, 취업대책기구의 총장직속기구화, 도서관의 장·단기적 해결 △복지원경개선부문에서는 각단대의 요구안이 수립되었으며 현재 문리대 공간문제에 대해 문리대와 학교측이 협의중이다.

【수원】지난 2일 오후 3시 제육교육관 2층 세미나실에서 가진 제7차 대표자협상이 양측의 입장만을 거듭 확인한채 별다른 논의의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학생측은 등록금 인상률 조정을 전제로한 협상안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고 학교측은 등록금 인상률 협상분가 입장을 보였다. 학교측은 서울과의 등록금 인상률 연계성등을 고려하고 양측이 의견차를 다시한번 조정해서 오는 6일 협상을 재개하기로 하여 귀추가 주목된다.

4월1일현재 수원캠퍼스의 등록율은 89%에 달하고 있고 학교측은 4월8일까지로 최종등록기간을 설정한 상태이다.

수강신청 최종확인·정정

수강신청 최종확인 및 정정이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있게 된다.

정정을 원하는 학생은 반드시 수강신청 교과목 정정양식에 정정사항을 기재, 학과장의 날인을 받아 해당대학 교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92년 '대학학과 평가 인정제'결과발표

전자공·물리학과 상위권 판정

지난 31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희집 고려대총장 이하 대교협)가 발표한 92학년도 '대학학과평가인정제'실시 결과에서 본교 물리학과(서울·수원)와 전자공학과(수원) 모두 '상위권대학'판정을 받았다.

특히 수원캠퍼스는 2개과 모두 '상위권대학'평가를 받음으로써 본교의 대외적인 위상 변화를 기대하는 분위기이다.

학과평가제는 대학의 시설확충과 교수확보 등 교육여건의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대교협이 지난해 처음 실시했으며 △학과목표 △교육과정 △학생 △교수 △사설·설비 △경영·재정 등 6개항목에 걸쳐 평가가 이루어졌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물리학과의 경우 서울캠퍼스가 학생영역과 시설설비, 경영 및 재정부문에서, 수원캠퍼스가 학과목표 및 교육과정에서 상위권대학으로 판정되었으며 수원캠퍼스 전자공학과는 교수영역에서 상위권 판정을 받았다.

올해는 화학과(서울·수원)와 기계공학과(수원)의 평가제가 실시될 예정이다.

학과	대학
물리학과	본교(서울·수원), 건국대, 경북대, 고려대, 동국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아주대, 인제대, 울산대, 이화여대, 인하대, 전북대, 충북대, 포항공대, 한국외대(용인), 한양대등 20개교
전자공학과	본교(수원), 강원대, 건국대, 경북대, 고려대, 광운대, 단국대, 서강대, 서울대, 울산대, 인하대, 전북대, 중앙대, 충남대, 포항공대, 한양대, 홍익대 등 17개교

(학과별 상위권대학 판정대학)

가녜프 유엔총회의장 강연

조영식총장 초청, 'UN과 새국제질서'

본교 조영식총장은 지난달 31일 가녜프 유엔총회의장을 평화복지대학원에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했다.

'유엔과 새 국제질서'란 제목으로 열린 이번 강연회에서 가녜프 의장은 "북한핵의 NPT 탈퇴로 일어난 문제를 유엔이 외교적 노력을 통해 평화적인 해결을 희망한다"고 밝히고 앞으로 '예방외교'등을 통해 분쟁의 조기 경보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연후 가녜프 의장은 '일찬만 이산가족 재회추진위원회'(위원장 조영식본교총장)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이산가족 재회촉구 범세계 지지서명운동'을 지지하는 서명을 했다.

학생활동 관련 제적생 복적

학칙개정안 발표 오는 30일까지 신청 받아

교무과는 지난 30일 제적생의 복적에 관한 학칙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는 지난 24일 정부가 시국·학내 분규와 관련해 제적된 학생은 복학조치한다는 방침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학칙의 부칙 제23항으로 별첨되었다. 복적대상자를 살펴보면 87년 7월11일부터 93년 2월24일까지의 기간중에 △학칙중 학생활동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제적된 자 △미등록·미복학 등에 의해 제적된 자로서 사실상 학생활동과 관련되어 제적된 자이다.

복적절차는 지도교수추천에 따라 학과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학과소속교수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복적신청원서, 경위서와 함께 학적과에 제입학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구속·수감자는 출소후에, 수배자는 수배해제후 학기초에 재입학이 가능하다.

수원캠퍼스의 경우 대상자 선정작업을 오는 6일까지 마무리한 후 대상자에게 가정통신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한편, 학칙의 본문변경없는 부칙변경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므로, 이번 특례조치는 '대학입시 공정관리대책위원회'설치를 학칙에 반영함으로써 발침이 가능하게 되었고 그에 따를 세부사항은 추후 논의될 예정이다.

이수병열사 18주기 추모제 거행

8일 오후3시, 수원통일광장서

'이수병 열사 제18주기 추모제'가 오는 8일 오후 3시 공대앞 통일광장에서 수원캠퍼스 총학생회(이하 총학) 주최로 거행된다.

박정희 정권하인 지난 75년 '인민혁명당 재건위'사건에 연루되어 학생시위 배후조정 혐의로 사형당한 故 이수병 동문의 민주화의 뜻을 기리고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변혁운동의 결의를 새로이 다지기 위해 지난 90년부터 양캠퍼스에서 번갈아 열리는 추모제행사가 올해에는 수원에서 열리게 된다.

강지광(임학·4) 수원캠퍼스 부총학생장의 사회로 진행될 이번 행사는 추모노래, 추모시낭독, 천준호(사학·4)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의 이수병선생 약력보고후 김봉우 민주동문회 회장의 '이수병선생의 삶과 투쟁'강연에 이어 이종린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대표, 이부영 민주당최고위원 등 각계 인사의 추모사가 있을 예정이다.

행사후에는 초청인사와 학생들의 분향과 공대에서 학생회관에 이르는 추도행진이 이어진다.

서울 오는 15일 시수공사 완료

문리·치대 보수공사도 곧 실시

서울캠퍼스 관리과는 지난달 30일부터 서울시가 실시하고 있는 시수공사가 오는 15일경 완료 된다고 밝혔다.

이번 공사는 하루 7백톤씩 소비하는 지하수의 부족을 서울시 상수도원으로 보충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현재 문리대, 한의대, 정경대, 가정대, 삼의원 등 6개 건물을 대상으로 공사가 진행중이다.

한편 지난 2일 열린 문리대 후면보수공사입찰에서 목성건설이 6백50만원에 입찰을 따내어 오는 10일경 공사를 시작하며 화학과 실험실 개수공사도 이달중으로 실시될 계획이다.

한편, 건설부는 지난 3월30일 치과대학 후면 도로포장 및 석축공사를 위한 입찰공고를 했다.

입찰은 참가업체들의 현장설명과 입찰등록을 거쳐서 일반경쟁으로 이루어지며 최저가격을 제시한 업체에 공사권이 주어진다.

문리대 '공간조정위'구성

문리대 공간문제에 대해 학교와 학생측은 '공간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이후 조정위에서 모든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학생측은 문리대건물증축의 2학기 착공과 동아리방, 야간학부 자치회실 확보를 위한 구 공대건물의 재배치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학교측은 증축시기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한 후 내년 초에 착공하겠다"고 밝히고 구 공대건물의 재 배치에 대해서는 힘들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학생측은 화학과 실험실을 가정대와 문리대학생회 공간을 이용하여 설비한다는데 동의했으나 학생측이 요구한 시항이 모두 지켜져야 한다는 전제를 달고 있어 앞으로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조정위는 교수·학생 각2인 정도로 구성되며 구 공대건물재배치와 가정대신축 후의 공간배분문제까지도 논의할 계획이다.

서울총여 출범식 오는 7일

총노선·사업계획등 선포

제7대 서울캠퍼스 총여학생회(이하 총여)는 오는 7일 오후 4시 노천극장에서 출범식을 갖는다.

이번 출범식은 총여의 1년 총노선과 사업계획을 전체학생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서 마련된 것이다.

행사내용을 살펴보면, 개막행사에서는 내빈소개와 방송시업보고를 하며 본행사에서는 각 단위의 사업계획 소개와 총노선에 대한 인준이 있을 예정이다.

총여는 2사분기인 4·5·6월의 3대 쟁취목표를 △소모임건설·강화 △중앙운영위원회의 위상강화 △율금이씨 살해사건 진상규명 등으로 설정하고 이후 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최종등록기간 확정공고

서울 7일, 수원 8일까지

교무처는 1학기 최종 등록기간을 서울캠퍼스는 오는 7일까지 수원캠퍼스는 오는 8일까지 각각 결정, 공고하였다.

등록금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가운데 계속 연기되었던 등록기간이, 서울의 경우 지난 30일 7차협상에서 학교·학생측의 합의아래 최종등록기간을 결정하였으나 수원은 등록금협상의 뚜렷한 진전이 없어 합의과정 없이 학교측은 이미 가정통신문을 발송한 상태다.

학적과는 이에 대해 교육부에 본교의 재적상현황을 오는 10일까지 보고해야하기 때문에 더이상의 연기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제학생은 서울신탁은행 전국지점에, 복학생은 서울의 경우 휘경동지점에서, 수원캠퍼스는 교내외환은행에서 최종등록하면 된다.

수원도서관 포항공대와 정보교류

13개 대학도서관 장서 열람 가능

수원캠퍼스 중앙도서관은 포항공대 도서관과 협약하여 3월 1일부터 시험가동한 정보자료의 온 라인 검색 및 원문복사 서비스의 본격적인 사용에 들어간다.

LAN망과 장서의 데이타베이스화가 완벽히 구축된 포항공대 도서관과 협약을 맺게 됨으로써 본교는 포항공대의 2천5백여 종의 학술잡지와 각종도서를 무료검색할 수 있고, 원문복사 서비스를 원할 경우는 일정의 수수료를 도서관 사서과에 납부한 후 이용하면 된다.

온 라인 검색은 포항공대와 협약을 맺은 한국 과학기술원의 아주대등 13개 대학도서관 장서도 대상으로 포함되고 일반학부생을 비롯한 교수 직원 등 누구나 각과 사무실과 도서관 참고열람실에 마련된 컴퓨터를 이용하면 된다.

서울캠퍼스의 경우 행정절차의 번거로움으로 그 사용을 대학원생 이상으로 제한한다.

여자축구부 '대학연맹전'우승

창단 3달만에, 한양여전 4:0 쾌승

여자 축구부가 지난 31일 효창운동장에서 펴박한 '93 전국춘계 남여 대학 연맹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축구부는 이화여대등 3개팀과 리그전을 펼친가운데 대회 마지막 날인 29일 한양여전을 4대0으로 이기고 창단 3개월만에 첫우승 영예를 안았다.

또한 김태운 여자축구부 감독은 최우수 감독상을, 이명화(체과대 체육·1)선수는 최우수 선수상과 득점상을 각각 수상했다.

한편 지난 29일부터 3일간 서울 체육고등학교에서 실시된 '93년 태권도 국가대표 최종선발전'에서 라이트급의 박세진(태권도·4), 웰터급의 임영호(태권도·4), 페더급의 유수진(태권도·3)선수등 6명이 국가대표로 최종 선발되었다.

이수병열사 18주기 추모제 거행

8일 오후3시, 수원통일광장서

'이수병 열사 제18주기 추모제'가 오는 8일 오후 3시 공대앞 통일광장에서 수원캠퍼스 총학생회(이하 총학) 주최로 거행된다.

박정희 정권하인 지난 75년 '인민혁명당 재건위'사건에 연루되어 학생시위 배후조정 혐의로 사형당한 故 이수병 동문의 민주화의 뜻을 기리고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변혁운동의 결의를 새로이 다지기 위해 지난 90년부터 양캠퍼스에서 번갈아 열리는 추모제행사가 올해에는 수원에서 열리게 된다.

강지광(임학·4) 수원캠퍼스 부총학생장의 사회로 진행될 이번 행사는 추모노래, 추모시낭독, 천준호(사학·4)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의 이수병선생 약력보고후 김봉우 민주동문회 회장의 '이수병선생의 삶과 투쟁'강연에 이어 이종린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대표, 이부영 민주당최고위원 등 각계 인사의 추모사가 있을 예정이다.

행사후에는 초청인사와 학생들의 분향과 공대에서 학생회관에 이르는 추도행진이 이어진다.

학생증 재발급 절차 개선

서울캠퍼스 학생처는 재학생들이 학생증 재발급을 신청할 때 학생처에서 직접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학생처는 본관에서 수입증지를 사서 신청서에 붙이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이같이 시행하기로 하고 1·2학년(복학생포함)은 2천원, 3·4학년은 1천원의 수수료를 받는다.

대학주보 수습기자 모집 〈4〉

도깝이 생활,
일주일이 하루 같지만
온몸으로 뜨거운 진실을 만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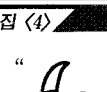
社 告

4기 수습기자 2차모집

대학주보는 '새내기'를 환영합니다

1. 자 격: 각 단과대학 1학년 신입생
2. 모집부문: 취재기자, 만화기자, 사진기자
3. 모집기간: 93년 3월29일부터 4월8일까지
4. 모집마감: 93년 4월8일 오후5시
5. 원서배부 및 접수: 양 캠퍼스 본사 편집실
6. 전형일시: 서울-4월7일 오후6시 수원-4월8일 오후 5시30분
7. 기 타: 장학금지급, 컴퓨터 실습, 취재·편집기술교육, 졸업 후 취업추천 대학원진학시 장학금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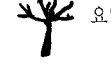
대학주보사

" 
요일에
를 하면서 한 주일을 출발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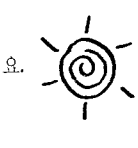
이 되면 편집회의를 하지요.

요일부터는
를 하구요.

요일에는
을 하지요.


요일은 데드라인이예요.
도 맞으면서 올바른 글을 고민하고, 청탁원고가

날 때는 정말 아찔하지요.
요일이 오게 되면,
을 하며 편집을 끝내자, 이미

새지요.
하고
한 후
하지요. 
요일은

저녁 까지 자고, 약속은 이지요."

대학주보사